

미래에셋증권, 스페이스X '0주'... 투자자·운용사 모두 빈손

국내 전문투자자 증거금 전액 환불 ETF 편입 전략 수정 '불가피' 한투운용, 장내 매수로 ETF 편입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미국 민간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곤'(Crew Dragon)이 발사되는 모습.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사상 최대 기업공개(IPO)를 둘러싸고 국내 투자자들과 자산운용업체가 예상치 못한 변수에 직면했다. 스페이스X IPO 인수단으로 참여한 미래에셋증권이 최종 배정 과정에서 판매 가능한 물량을 한 주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물론 관련 ETF 편입을 준비하던 운용사들까지 모두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다. 일부 운용사들은 장내 매수로 빠른 대응에 나섰지만, 공모로 선제 편입하려던 당초 전략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스페이스X 편입 기대감으로 우주항공ETF에 투자자금이 몰렸던 만큼, 이번 '0주 배정' 사태를 둘러싼 투자자 혼선과 업계 후폭풍도 이어질 전망이다.

◆ETF 편입 계획한 자산운용사도 직격탄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 IPO 공모 인수단(Un-

derwriter) 자격으로 국내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했지만 글로벌 대표주관사인 골드만삭스의 최종 물량 배분 과정에서 판매 가능한 주식을 배정받지 못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0일까지 진행한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국내 개인 및 법인 전문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의 청약 증거금을 13일

새벽 전액 환불했다. 스페이스X 공모주를 확보해 ETF와 공모펀드에 선제적으로 편입하려던 국내 운용사들의 전략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미래에셋증권이 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뒤 "장중 매매 대응을 통해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 ETF 내 스페이스X 편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투운용은 스페이스X IPO 참여 사실을 공개하며 배정받은 물량을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 ETF'와 '한국투자글로벌우주기술&방산펀드'에 편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역시 TIGER 글로벌AI액티브 ETF와 TIGER 글로벌AI전략인프라액티브 ETF 등을 통해 IPO 물량 확보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래에셋증권이 최종 물량을 배정받지 못하면서 관련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다만 미래에셋운용은 패시브 ETF 특성상 지수 편입 일정에 맞춰 스페이스X를 순차적으로 편입할 계획이다.

국내 우주 테마 ETF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14일 기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우주테크 순자산은 2조 2464억원,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미국우주항공은 7034억원, 하나자산운용의 1Q 미국우주항공테크는 5940억원,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TIME 글로벌우주테크&방산액티브는 3129억원,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는 2503억원 규모다.

◆투자자 실망감 커져... 금융당국도 경위 파악

업계에서는 절차상 문제 여부와 별개로 투자자들의 체감 충격은 상당했다고 보고 있다. 스페이스X IPO 청약은 미래에셋증권이 진행한 청약이 있더라 조기 마감될 정도로 관심이 높았고 일부 우주 테마 ETF에는 스페이스X 편입 기대감에 자금이 몰리기도 했다.

금융당국도 이번 사태의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증권이 투자설명서와 핵심설명서를 통해 물량 미배정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했고 미국 IPO 구조상 대표주관사의 최종 배정 재량도 명시돼 있었지만 국내 투자자들이 실제로 단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한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투자설명서 상 물량 미배정 가능성은 사전에 고지돼 있었고 절차적으로도 문제는 없다"면서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페이스X IPO 참여 자체에 의미를 뒀던 만큼 실망감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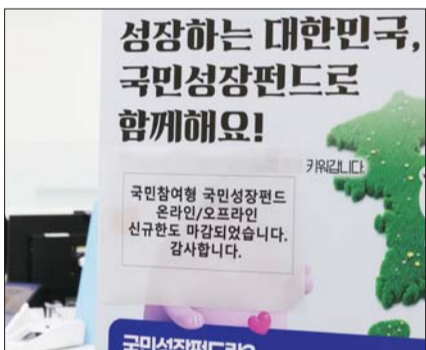
zolkova@metroseoul.co.kr



metro

국민성장펀드 2차 출격... 성과 경쟁 유도

금융위원회, 6000억 규모로 출시 운용사 책임성 강화해 수익률 제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영업부에 온-오프라인 신규한도 마감 문구가 붙어 있다. /뉴시스

금융위원회가 3분기 중 6000억원 규모로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 1차펀드는 15일부터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간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참여성장펀드 운용사 간담회를 열고 운용사별 투자전략과 책임운용 및 수익률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와 자펀드 운용사 10곳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 수요에 부응하고 생산적 금융을 통한 경제 대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2차 펀드를 출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진행한 1차 펀드는 닷새 만에 전량 판매됐으며, 오는 15일부터 투자 운용이 시작된다.

재정은 1차와 동일하게 1200억원이 후순위로 출자된다. 직접투자 부문 예산 1500억원 중 400억원, 인프라투자 부문

예산 4000억원 중 800억원을 활용한다. 재정모펀드 운용사와 공모펀드 운용사는 1차와 동일하게 유지되되,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하는 자펀드 운용사는 신규로 선정한다.

서민 물량 배정, 온라인 판매 비중 등 판매 관련 사항은 1차 펀드 판매실적을 바탕으로 은행·증권사 의견을 수렴해 개선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운용사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논의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참여 운용사의 수익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자펀드 운용사는 결성금액의 1% 이상을 후순위로 출자해야 한다. 펀드 누적수익률이 5년간 30%를 넘어서면 운용사가 초과 수익의 12%를 성과보수로 받을 수 있다.

비상장기업 및 코스닥기술특례상장사 신규 자금 투자, 비수도권 지역 투자 비중을 각각 40% 이상 달성하면 성과보수는 16~20%까지 확대된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펀드 자율 투자 한도를 40%까지 허용하고 코스닥벤처펀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운용성과는 월간·분기별 보고를 통해 점검한다.

금융위는 한국성장금융이 매년 우수 운용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이들 운용사에 후속 펀드 및 정책성 펀드 참여 시 우대하는 등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산운용보고서에 공모펀드 수익률, 자펀드 투자내역(상위 10개 종목 및 투자 비중) 외에도 자펀드별 수익률을 공시하도록 해 경쟁을 촉진한다.

또한 자펀드 선정 시 핵심 운용인력의 인센티브 시스템도 심사해 인력 이탈을 방지할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ChatGPT로 생성한 관련 이미지.

'삼행시 통장' 악용 전세사기 주의보

금감원 Q&A 단체계좌에 '단체' 표기 의무화

#. 임차인 김모씨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이름과 동일한 예금주 계좌로 보증금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해당 계좌는 임대인 개인 계좌가 아닌 임의단체 명의 계좌였습니다. 임차인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전세보증금을 보냈고, 결국 약 8억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통장'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 A씨는 임대인 B씨로부터 부동산 관리를 위임받은 뒤 B씨 이름을 딴 임의단체를 만들고 단체 명의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임차인들은 계좌주명이 계약서상 임대인 이름과 같다는 이유로 안심하고 보증금을 송금했고, A씨는 약 8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챘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권 계좌주명 표기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임의단체 명의 계좌에는 계좌주명 뒤에 '(단체)'가 함께 표시됩니다. 기존에는 개인 계좌와 구별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송금 단계에서 단체 계좌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행권은 이달 중 관련 시스템을 우선 적용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은행도 순차적으로 개선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전세보증금 등 고액자금을 송금할 때 계약서상 이름과 예금주명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계좌주명에 '(단체)'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거래 상대방이 실제 누구인지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허정윤 기자

KCGI운용, '코리아종합채권 펀드' 출시

'KIS종합채권 지수' 추종

KCGI자산운용이 국내 우량 중장기채권에 투자하는 'KCGI코리아종합채권펀드'를 출시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 펀드는 약 2200조원 규모의 국내 채권시장을 대표하는 'KIS종합채권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로 시장 상황에 맞춘 유연한 채권운용 전략을 병행하여 지수 대비 초과 수익 달성을 추구한다. 주로 기관투자자와 채권투자에 관심있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KCGI자산운용은 이번 종합채권펀드를 런칭함으로써 단기채펀드(만기 6개월 이내), 중기채(만기 2~3년)펀드와 함께 중장기채 펀드까지 채권형펀드의 듀레이션 라인업을 확대하게 됐다.

이 펀드는 신용등급 AA-이상, 잔존 만기 3개월~50년의 국내 채권을 선별하여 투자할 계획이다. 펀드의 벤치마크(BM)인 'KIS종합채권지수 (AA- 이상)+ 기준금리 10%'의 6월10일 기준 평균 만

기(듀레이션)는 4.87년, 만기수익률(YTM)은 3.97%로 최근 금리 상승 영향이 만기수익률에 반영되어 있다.

KCGI자산운용은 종합자산운용사로서 채권운용부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7월 기존의 채권운용팀을 본부로 격상하고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을 역임한 홍사욱 상무를 본부장으로 영입하고 운용 시스템을 보강해 왔다.

KCGI자산운용은 "다양한 채권 전략 분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초과수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